

8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감소



8월 국내 광고경기는 7월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KAI를 조사한 결과 8월 예측지수가 81.8로 모든 매체의 광고비가 7월 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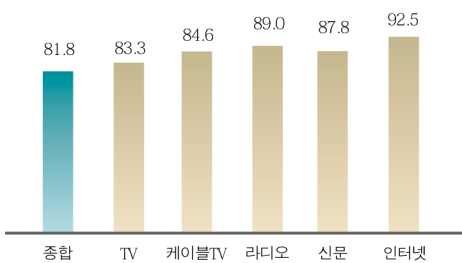
월별 광고경기지수(KAI)가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과는 전체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광고비가 감소됨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8월이 전통적인 광고비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는데, 지상파TV와 인터넷의 경우는 타매체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KOBACO측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보건용품(115.5), 출판(101.1), 수송기기(123.9), 유통(110.7), 관공서 및 단체(143.2) 업종의 광고비가 7월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KOBACO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K A I**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